

2020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계열 - 오전반>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

- ☐ 논술고사 시간은 90분이며, 답안의 자수 제한은 없습니다.
- ☐ 1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1면에 작성해야 하고, 2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2면에 작성해야 합니다. 1, 2번을 바꾸어 작성하는 경우 모두 '0점 처리'됩니다.
- ☐ 연습지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답안은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만 작성하며 연필, 샤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에 두 줄로 긋거나 수정테이프(수정액은 사용 불가)를 사용해서 수정합니다.
- ☐ 답안지에는 답 이외에 아무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 ☐ 답안지 교체는 고사 시작 후 70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SITY

[문항 1]

- (1) 제시문 (가)에서 밑줄 친 ㉠의 의미를 제시문 (나), 제시문 (다), 제시문 (라)를 참조하여 논술하시오.
- (2) 제시문 (마)에서 밑줄 친 ㉡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밝히고, 이들을 제시문 (가)의 ㉠의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제시문 (가)

기 자 : 등단 이후 한때 문학을 거의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신경림 : 그렇다. 1957년쯤인데 시를 쓸 마음도 안 생기고, 동료나 선배 문인들을 만나도 아무 재미가 없었다. 고향으로 낙향하여 농사도 짓고 광산이나 공사장에 가서 일도 하고, 방물장수나 거간꾼들을 따라 방랑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많은 사람을 만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었다. 거의 10년을 시골에 박혀서 살았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다. 지금도 그것만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은 개인이며, 마지막 책임은 결국 자기 자신이 져야 한다. 하지만 남과 함께 살지 않는 삶이라는 건 이 세상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람은 남과 더불어 혼자 산다는 것이다. 말이 이상하지만 이 ㉠‘더불어 혼자’ 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시문 (나)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마찬가지’라는 말을 잘 쓴다. 좋은 경우이든 나쁜 경우이든 자주 쓰는 말이다. 안 먹고서도 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고 지고서도 이긴 거나 마찬가지로 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버 것이 살아 있는 것을 보고서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라는 말의 어원을 캐 보면 ‘마치 한 가지’라는 말이 줄어 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잎사귀는 제가끔 달라도 그것이 달려 있는 가지는 똑같은 가지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말에는 겉보기는 달라도 그 근본을 따져 가면 마치 한 가지와도 같다는 오묘한 뜻이 들어 있는 셈이다

나뭇잎은 서로 달라도 그 가지는 한 가지이다. 그래서 그 가지가 꺾이면 나뭇잎 하나하나가 다 같이 시들어 떨어지고 만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다른 것인데도 그 뜻이나 모양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마치 한 가지’와 다른 없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는 참으로 많다. 하나하나의 나뭇잎 사이에 가려져 있는 한 가지를 찾아내는 마음과 그 시선이 바로 한국을 지켜 오고, 한국인을 한 동족으로 이어온 이념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가지 의식은 뿌리와 나뭇잎의 한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데 문제성이 있다. 가지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나무 등결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또 들어가면 뿌리가 드러난다. 미국 내 흑인들의 민족적 공동체의 근원을 파고들어 간 알렉스 헤일리(Alex Haley)의 소설 제목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뿌리’였다. 근본이라는 한자말 역시 뿌리라는 뜻이다. 근본(根本)의 근(根)이 뿌리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본(本)이라는 한자 역시 나무뿌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나무 목(木) 자 위에 선을 그으면 이파리가 아직 나오지 않는 나무의 마들가리 부분을 뜻하는 미(末)자가 되고 반대로 그것을 아랫부분에 그으면 뿌리 부분을 나타낸 본(本) 자가 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뿌리만을 강조하면 이 세상에 다른 것이란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은 너무 뿌리 쪽으로 가도 현실성이 없고 너무 이파리 쪽으로 가도 허전해서 못산다. 동질성과 이질성의 그 사이에 바로 가지가 있다. 무수한 가지가 있다.

제시문 (다)

인도의 철학자인 크리슈나무르티는 그의 저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보는 법을 안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보는 일은 어떤 철학도, 선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냥 보면 된다."

그 어떤 고정 관념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허심탄회 빈 마음으로 보라는 것. 남의 눈을 빌릴 것 없이 자기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다.

차를 즐기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어디서 나오는 무슨 차는 맛이 좋고, 어디 차는 맛이 시원치 않다고. 물론 기호에 따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차 맛에 어떤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형편없는 찻감만 아니라면 한 잔의 차를 통해 삶에 대한 잔잔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요는 그 차가 지닌 특성을 알맞게 우릴 때 바로 ‘그 차 맛’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다. 인격에 고정된 어떤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지닌 좋은 덕성(德性)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는 내게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제시문 (라)

“좀 넉넉히 넣어요, 넉넉히.”

당근 씨를 막 뿌리려는 남편에게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다른 씨앗들은 한번 키워 보았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 있겠는데, 부추 씨와 당근 씨는 올해 처음 뿌리는 것이라 대중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아까부터 밭 주변을 종종거리는 참새 서너 마리가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작년에도 너무 얇게 씨를 뿌려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씨 뿌린 지 두 주일이 넘도록 싹이 나오지 않아 웬일인가 했더니 새들이 와서 잘 잡숴고 간 뒤였다. 그제야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적어도 세 알 이상씩 심는 뜻을 알 것 같았다. 한 알은 새를 위해, 한 알은 벌레를 위해, 그리고 한 알은 사람을 위해.

워낙 넉넉히 뿌린 탓인지, 새들이 당근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탓인지, 당근 싹은 좀 늦긴 했지만 촘촘하게 돌아 나왔다 처음에는 그 어렵게 틔워 낸 예쁜 싹들을 숨아 내느니 차라리 잘고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낫다고 그냥 두었다. 그러나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 나오는 뿌리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이러다 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것을 보면서 식물에게는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생기는 것처럼,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밀며 얹혀 있는 그 붉은 뿌리들에서도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조금씩 숨아 주어서 그 아우성을 중재하는 일이었다.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제시문 (마)

루이스 캐롤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어느 날 이상한 나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 그 나라는 모두 다 쉼 새 없이 달려야만 하는 ㉠‘붉은 여왕’의 나라이다. 붉은 여왕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땅이 빠른 속도로 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게 되면 금세 뒤처지고 만다.

앨리스는 달리며 말한다. “우리 세상에서는 지금처럼 오랫동안 빨리 뛰었다면 보통은 어디엔가 도착하게 돼요.”

이에 붉은 여왕은 이렇게 답한다.

“느릿느릿한 세상이군. 그렇지만 보다시피 이곳에서는 네 마음껏 달려도 결국에는 같은 곳에 머물게 돼. 어딘가에 가고 싶다면 적어도 그 두 배 속도로 뛰어야 한단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영국의 과학 저널리스트 매트 리들리는 자신의 책 제목 “붉은 여왕”을 따온다. 그는 포식자와 피식자, 기생 생물과 숙주는 살아남기 위해서 붉은 여왕의 세계에서처럼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고 말한다. 생물체의 진화는 단독으로 일어나는 것보다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 속에서 더 빨리 이루어지고, 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개체는 도태된다는 것이다.

지구에서 최고로 빠른 포유류는 치타이다. 매트 리들리는 치타가 처음부터 그렇게 달리기를 잘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초식 동물을 공격해서 잡아먹는 치타는 먹잇감보다 빨라야 배를 굶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치타의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유전자는 우성이 된다. 치타의 먹잇감이 되는 영양이나 얼룩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들도 역시 빨리 달려야 천적에게 잡아먹히지 않는다. 따라서 치타가 빨라지면, 영양이나 얼룩말도 빨라진다. 초식 동물이 빨라지면 이를 잡아먹는 육식 동물도 더욱 빨라진다.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적보다 빨리 달리라는 것이 ‘붉은 여왕’ 이론의 핵심이다.

[문항 1] ‘더불어 혼자 살기’에 대한 이해

1. 출제 의도

- 모순되어 보이는 개념을 자료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종합적 분석력 및 이해력을 평가한다.
- 하나의 개념이 가지는 대립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다면적 사고 능력과 이를 일반화시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논리력을 평가한다.

2.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 “국어과 2009 개정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1		관련
	성취기준 1	31014-2.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제시문(가), 제시문(마)
	과목명: 국어II		관련
	성취기준 1	31027-1.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여 독자가 알기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31028-3.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제시문(나), 제시문(다) 제시문(라), 제시문(마)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 1	31034-2.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류·체계화할 수 있다. 310313-1. 글의 전체 구조나 내용들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310322-2. 주장하는 내용과 관점이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글을 쓸 수 있다. 3310323-3. 언어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관습을 고려하여 적합하고 타당한 논거가 제시된 글을 쓸 수 있다.	제시문(나), 제시문(다) 제시문(라), 제시문(마)
	과목명: 독서와 문법		관련
	성취기준 1	310417-2. 글 구성단위 간 관계를 단서로 활용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310418-2. 독자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310421-1. 글을 읽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310422-1. 동일한 화제나 주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 310422-2. 특정한 주제에 대한 여러 관점의 글을 읽고 내용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제시문(가) 제시문(나), 제시문(다) 제시문(라), 제시문(마)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31051-2. 작품의 내적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다. 31054-1. 문학의 다양한 주제 의식이 인접 분야의 주제 의식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310511-1. 작품을 읽고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문제의식과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310514-1.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아낸 문학 작품을 읽고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상황과 문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나), 제시문(다) 제시문(라), 제시문(마)

나) 자료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국어 1	윤여탁 외 9인	미래엔	2015	19쪽	제시문 (가)	X
고등학교 국어 1	이승철 외 7인	비상교육	2015	180~181쪽	제시문 (나)	X
고등학교 문학	이승원 외 8인	좋은책 신사고	2016	344쪽	제시문 (다)	X
고등학교 국어 2	이승원 외 8인	좋은책 신사고	2016	292쪽	제시문 (라)	X
고등학교 국어 1	신동훈 외 15인	동아출판사	2015	280쪽	제시문 (마)	X

교과서 외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3. 문항해설

문항	해설
[문항 1]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 1]의 (1)은 제시문 (가)의 ‘더불어 혼자’ 사는 것이 내포하는 의미를 제시문 (나)의 ‘한 가지’, 제시문 (다)의 ‘그 차 맛’, 제시문 (라)의 ‘거리’ 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논술하는 문제임.• 제시문 (나)에서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 ‘한 가지’ 이지 ‘한 뿌리’ 가 아님을 찾아야 하고, 제시문 (다)에서는 더불어 ‘혼자’ 산다는 것은 ‘그 차 맛’ 과 같이 개인이 지닌 특성이 발현되는 삶이어야 함을 찾아내야 함. 또한, 제시문 (라)에서는 ‘더불어 혼자’ 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일정한 ‘거리’ 를 존중해야 함을 찾아내야 함.
[문항 1]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 1]의 (2)는 제시문 (마)의 전반부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붉은 여왕의 나라’ 가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나라임을 추론하고, 제시문 (마)의 전반부에 기술되어 있는, 치타와 영양이 서로 빨라진다는 설명을 통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가운데 서로 발전하는’ 나라임을 추론하는 문제임.• 제시문 (마)의 ‘붉은 여왕의 나라’ 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제시문 (가)의 ‘더불어 혼자’ 사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각각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 사고력을 통해 논술하는 문항임.

4. 채점기준

[문항 1]의 (1)	
준거1	제시문 (가)의 ‘더불어’ 사는 삶을 제시문 (나)의 ‘한 가지’ 가 가지는 의미로 설명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불어’ 사는 삶의 터전은 나뭇잎들(혼자들)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추상적이고 근원적인 ‘뿌리’ 가 아니라 개개의 나뭇잎들(혼자들)이 직접 매달려 관계를 맺고 있는 ‘가지’ 이어야 한다.• ‘가지’ 들은 동질성(뿌리)과 이질성(나뭇잎) 사이에서 무수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준거2	제시문 (가)에서 더불어 ‘혼자’ 사는 삶을 제시문 (다)의 ‘그 차 맛’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다)에서 ‘세상을 자기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으며, ‘그 차가 지닌 특성을 알맞게 우릴 때 ‘그 차 맛’ 을 알 수 있음’ 을 통해, 개개인이 지닌 시각(입장)과 특성이 드러날 수 있어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제시문 (가)의 ‘더불어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시문 (라)의 ‘거리’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설명할 것
준거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라)의 ‘거리’ 는 더불어 사는 삶에서 개인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는 장치이다. 더불어 사는 혼자들이 ‘거리’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배려, 양보, 존중 등의 태도가 필요하다.

[문항 1]의 (2)	
	제시문 (마)에서 ‘붉은 여왕의 나라’ 에 포함된 두 가지 의미 제시
준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붉은 여왕의 나라’ 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 즉 경쟁에서 지게 되면 도태되는 나라이다(경쟁에 의한 도태). ‘붉은 여왕의 나라’ 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가운데 서로 발전하는’ , 즉, 경쟁을 하면서 서로 발전하며 진화하는 나라이다(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
	제시문 (가)의 ‘더불어 혼자’ 사는 것의 관점에서 ‘경쟁에 의한 도태’ 와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 을 설명
준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불어 혼자’ 사는 것의 관점에서 ‘경쟁에 의한 도태’ 는 ‘혼자’ 만 존재할 뿐 ‘더불어’ 는 존재하지 않는 삶이다. 즉, 개개인들이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집단이기에 여기에서는 1인의 승자와 그 밖의 패자가 존재하는 삶만 존재하지 더불어 사는 삶은 존재할 수 없다. ‘더불어 혼자’ 사는 것의 관점에서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 은 서로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개개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발전해 나가는 공동체로, 이곳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

5. 대학 제시 답안

(1) 제시문 (가)의 ‘더불어 혼자’ 사는 삶에서, ‘더불어’ 산다는 것은 제시문 (나)의 ‘한 가지’ 와 같이 제각기 다른 혼자들이 따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지에 붙어서 서로의 삶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더불어’ 사는 삶은 ‘뿌리’ 처럼 근원적인 것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다. 근원적인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는 삶은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인식하며 사는 삶이다. 또한, ‘더불어 혼자’ 산다는 삶은 제시문 (다)의 ‘그차 맛’ 을 내는 삶이다. 즉,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개개인이 혼자가 지닌 특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더불어 혼자’ 살기 위해서는 제시문 (라)에서 말하고 있는 개인 간의 ‘거리’ 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면서 개개인들이 서로에 대해 배려하고 양보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특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불어 혼자’ 사는 삶이다.

※ 글자 수: 477자(공백 포함)

(2) 제시문 (마)의 ‘붉은 여왕의 나라’ 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경쟁의 결과,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고 패자는 도태한다. 다른 하나는 치타와 영양의 관계에서처럼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 경쟁을 하는 동안 서로가 발전(진화)한다. 이러한 두 가지 다른 의미는 경쟁을 결과로 보느냐, 아니면 과정으로 보느냐에 따라 발생한다. 즉,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패자는 도태되지만,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 상호 발전하기 때문이다.

제시문 (가)의 ㉠의 측면에서, ‘경쟁의 결과로 인해 패자가 도태’ 되는 붉은 여왕의 나라는 ‘혼자’ 사는 삶만 존재할 뿐 ‘더불어’ 사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더불어 혼자’ 사는 삶이 불가능하다. 반면, ‘경쟁의 과정을 통해 상호 발전’ 하는 붉은 여왕의 나라는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쟁하면서 서로가 발전하는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며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 혼자’ 사는 삶이 가능한 나라이다.

※ 글자 수: 493자(공백 포함)